

함평군 초·중생 영어경시대회 실효성 논란

매년 20명 선발 해외연수 올 응시생 70명 가량 줄어 부실한 시험관리도 문제 사교육 조장 불만 목소리도

함평군이 해외연수 학생 선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함평군영어경시대회가 응시자 감소와 부실한 시험관리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함평군영어경시대회가 올해로 12회를 맞아 최근 실시됐다.

이번 시험은 초등학교 4학년부

교 3학년까지 총 174명의 학생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첫 시행 때 고등학생까지 시험대상에 포함됐으나 2018년 대입수능부터 영어시험이 절대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의 시험방식은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부터 고등학생은 제외하고 초·중학생 위주로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1차시험(필기)을 통해 성적우수자를 1차로 선발하고 2차시험(말하기)을 거쳐 최종 선발된 초·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0여만원씩 총 1억2000여만원의 군비를 들여 겨울방학 중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연수에 참여한 학생수는 총 172명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대비 응시자가 70명 가

줄어드는 등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백만원의 시험위탁비를 공인된 전문기관에 지불하며 시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험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최근 끝난 12회 영어경시대회에서는 시험이 끝난 후 시험지를 분실했다가 가짜로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분실된 시험지를 찾기위해 시험응시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또 시험중에 듣기평가를 위한 카세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허술한 시험관리 이외에도 선발시험이 영어에 한정돼 있다 보니 특정과목에 대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해외연수에 참가한 학생 중 면에서 선발된 학생을 제외하고 90% 이상이 특정학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수생으로 뽑혀하하니 특정학원을 찾게되고 사교육과 과외가 성행하는 등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영어경시대회가 12회째를 치루고 있어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그러나 관심과 시험 호응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서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다각적인 변화를 구상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지난 17일 무안군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건강놀이대회에서 어르신들이 옷놀이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노인회 어르신 건강놀이·장기대회

(사)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는 지난 17일 무안군노인복지관과 게이트볼장에서 '제7회 어르신 건강놀이대회 및 장기대회'를 개최했다.

노인들의 체력 증진과 회원 상호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장기, 윗놀이, 후호 등 6개 종목에 200여 명이 참여해 그동안 쌓았던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이날 경기 종목별 우승은 '장기' 무안읍 정옥진씨, '게이트볼' 무안을 분회팀, '후호' 몽탄면 분회팀, '윗놀이' 망운면 분회팀, '링 던지기' 해제면 분회팀, '한궁' 삼향읍 분회팀이 각각 차지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치지 쉬운 무더위 속에서 어르신들이 건강을 잘 챙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양수 대한노인회 무안군 지회장도 "회원 간의 친목 도모 및 화합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8월 9~12일 무안연꽃축제... 85개 프로그램

무안군은 오는 8월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일로읍 화산백련지 일대에서 '사랑·소망, 그리고 인연'이란 주제로 무안연꽃축제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 해로 22회째를 맞는 무안연꽃축제는 연자방 소망등 달기와 백련 가래떡 나눔잔치 등 8개 분야 85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지난해 큰 호응을 받았던 '일음나라 i-콜론'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는 발이핑핑 연꽃 일음 물길 체험과 연꽃 소원유등 띄우기, 연꽃하늘 드론 시연 및 체험과 화산백련지 전역에 가상의 보물을 숨겨 찾는 연꽃방죽 AR 보물찾기 등이다. 또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를 비롯해 108흔들다리 생태탐방로, 생태연못, 전통정원 등이 운영되고 올해 새롭게 선보일 '평화의 동산'에는 다양한 연꽃과 한반도 모형의 꽃단지, 포토존, 꽃 터널 등을 설치해 새로운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신안군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선진지 견학

신안군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참여 운영 노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견학에는 안좌 반월·박지도와 증도 기점·소악도 마을 주민들과 추진위원회, 전남도, 군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안좌 주민 등은 이 기간에 마을주민 주도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가시리권역과 윗뜨리 권역, 선홍마을 등을 방문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제1회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에 선정된 '가시리 권역'에서는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과정과 체험센터, 운영프로그램 추진사례 등을 벤치마킹했다.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동백동산 숲을 가진 '선홍마을'에서는 생태관광 운영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농촌마을사업의 최우수 사례로 뽑히는 '윗뜨리 권역'에서는 지역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사업, 홍보마케팅, 시설물 유지관리를 살펴봤다.

신안군 관계자는 "제주도 사례를 통해 우리 지역도 주민의 역량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영광군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준비 착착

10월 11일부터 나흘간 개최 기관·대학 5곳과 업무 협약

영광군이 오는 10월 국내 최초로 개최하는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18일 군청사에서 김준성 군수와 관련기관, 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e-모빌리티 엑스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체결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자동차공학회, e-모빌리티 연구센터, 홍익대 산학협력단, 호남대 4차 산업혁명 사업단 등 총 5곳과 이뤄졌다.

협약 기관과 대학은 영광군이 오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개최하는 엑스포 학술행사와 부대행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성공개최를 지원하게 된다.

GIST와 한국자동차공학회, e-모빌리티 연구센터는 "학술행사"를 주관한다. 국내의 기관에서 e-모빌리티 산업의 현재와 미래 등을 발표하는 세미나를 비롯해 관람객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 기술창업분야 선수들이 출전하는 모의투자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지난 18일 영광군 청사에서 김준성 군수와 대학 관계자들이 e-모빌리티 엑스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호남대는 'e-모빌리티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준비 중이다. 국내 10여개 대학 학생들이 직접 작업한 차량으로 각 코스에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며 수행 기술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e-모빌리티 디자인 전시와 디자인경진대회'를 준비 중인 홍익대는 산업디자인학과와 기계시스템디자인학과 학생들이 1년 동안 작업한 'e-모빌리티 디자인'을 그래픽 패널과 목업(Mock Up·실물 모형)으로 전시한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는 신선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이 대거 선보일 예정이라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에서는 각종 포럼과 세미나, 400여대의 e-모빌리티 체험, e-모빌리티 자율주행 경진대회, 드론경진대회, 할인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25일까지 추가 모집

영광군은 버려지는 빗물을 생활용수로 재활용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잔여사업물량 8개소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 모은 빗물을 간단히 여과해 저장했다가 조

경용수와 청소용수, 농업용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로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지붕 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이 5000㎡ 미만인 공동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이며 지원금액은 빗물이용시설의 담수용량 2t을 기준으로 개소당 최대 500만원이다. 설치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영광군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현지실사 및 재이용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중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총 예산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함평공공도서관 여름방학 평생학습 초등학생 수강생 모집

함평공공도서관은 오는 24일까지 2018년 여름방학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여름방학 평생학습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 2주 동안 운영하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리딩보드놀이와 미래핵심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는 창의로봇교실을 운영한다.

특히 불학기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들의 요구가 제일 많았던 창의로봇교실은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해 조립에서 조종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수강생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과 방문 접수로 선착순 모집하고, 신청자격은 함평군과 인근지역 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재료비와 로봇키트 대여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류미현 함평공공도서관장은 "마을학교인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미래핵심역량 중 하나인 창의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알찬 여름방학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수강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공공도서관 홈페이지(hplib.jne.go.kr)를 참고하거나 담당자(061-322-0515)에게 문의하면 된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경매 투자

- ▶경매 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자본금 1억원 이상
- ▶월 15% 이상 수익

소유권/근저당으로 보장

(주) 오 천 경 매
상담예약. 010-3605-5000